

장흥군, 134억원 투자협약...산단 활성화 '신호탄'

총 4개 기업 바이오산단·농공단지 공장 신설 약속 민선8기 산업단지 분양률 80% 달성 신호탄 평가

장흥군은 8월 4개 기업과 총 13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장흥바이오식품 산단과 장흥농공단지 39,669㎡ 부지에 목재데크, 실내의 운동기구, 화장품, 조형물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가 시작된 뒤로 2년만에 개최된 대면 협약식으로, 민선 8기의 산업단지 분양률 80% 달성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약에 따라 ㈜포레스트는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13,223㎡ 부지에 34억원을 투자해

합성목재, 데크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맥스에스엔티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3,223㎡ 부지에 73억원을 투자해 실내의 운동기구 제조 공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에이블리컴퍼니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9,917㎡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해 로션, 에센스 등 기초 화장품 제조 공장을 만든다. 디자인숲은 장흥농공단지 3,306㎡(1,000평) 부지에 7억원을 투자하여 조형물, 디자인 제품 제조 공장을 짓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



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228억 확보

해남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2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해남군은 기초지원계정 126억원과 함께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도내 최대 금액인 102억원을 확보, 차질없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비전 아래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군민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인프라 구축과 함께 귀향·귀촌인을 겨냥한 외부인구 유입정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활력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우선'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프로젝트는 18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마을 브랜드개발 사업과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푸드레시피 개발 등 특화된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산이면에는 공유주방과 대형 조리 주방시설 등을 조성하는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를 노리는 사업도 펼쳐진다. 땅끝 빈집-농지은행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귀농·귀촌 후 주택마련과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주거지와 농지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복일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올해는 계곡면과 현산면의 4개 학교로 확대한다. 전학생과 가족이 지역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 리모델링 비용과 주민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형 농촌유학 사업으로 농촌 유학을 통해 단기 거주할 학생과 가족을 위한 거주기반을 마련을 위해 모델형 주택 신축과 빈집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스테이션-H(솔라지도 스마트 컬리지) 조성 사업은 솔라지도 기업도시 내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도시 입주업체의 취업으로 연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교육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구)화산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타운을 위한 활동 공간인 해남예술인촌으로 조성하며, 청소년상담소와 청년농업인을 위한 가공창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부지내에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다양한 평형대를 갖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 1인 가구에서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편하게 식사하세요"...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읍면 경로당 11개소에 지원

강진군이 지난 8일, 경로당 1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관질이 약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입식 식탁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경로당 11개소를 선정, 입식 식탁을 먼저 보급해 명절 전 뜻 깊은 선물이 됐다. 추후 다른 경로당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활동 시 발생하는 불편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밝은 노후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입식 식탁 보급률을 점차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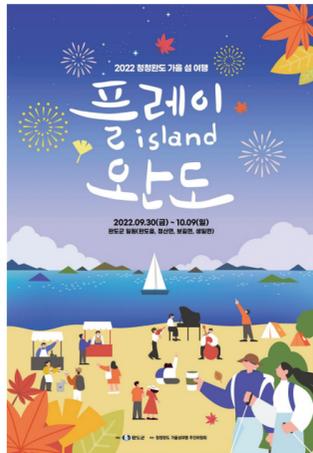
진도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개최

진도군이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를 오는 14일(수)부터 27일(화)까지 2주 동안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 사회'라는 주제로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다.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 후 진도군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과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뒤 휴대전화를 가지고 걷기를 실천하면 된다.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행사는 2주 동안 12만보(1일 최대 1만보)를 달성해 쿠폰을 받은 선착순 100명에게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플레이 아일랜드 완도' 개최

9월30일~10.9일까지 요트 투어·별명 투어·세연정 야간 개장 등 운영



완도군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play island) 완도'를 주제로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은 완도와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4군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청정완도 가을 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섬의 매력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으며, 최근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발굴했다. 주요 행사로 완도읍 해조류센터 일원에 마련한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에서는 완도읍과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주민들이 완도의 관광 자원 등을 홍보하는 '완도 섬 관광청'을 운영하고,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마켓 운영,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요트 투어와 완도수목원에서는 파종류 체험 랜드를 운영한다. 슬로시티인 청산도에서는 '느림을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밤바위 별명 투어, 청산도 클래식 발걸, 항구 포차, 노을 산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길도는 '풍류를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달빛 아래 세연정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세연정을 야간 개장하고, 보길도의 가양주 시음과 고산 야행 풍류 문화 공연 등이 열린다. '가고 싶은 섬' 생일도는 '새로운을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생일도의 이름에 걸맞은 '해피버스테이 투 미' 이벤트와 생일도 섬패킹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여러 형태의 리플릿인 '완도 섬 여권'을 발행해 완도읍,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섬 방문 인증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